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17 Number 9 ● 9 2009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

이미 떠나버렸다!

Already Gone!

버려진 영국 교회의 예배당



교회를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며 속수무책인 교회에 누가, 언제, 왜 떠나가는지, 대책은 있는지 정말 궁금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그 질문들에 대한 최초의 조사와 대답들을 몇 회에 걸쳐 소개하게 됩니다.

남아도는 예배당! 현재 영국 교계를 표현하는 단적인 표현일 것이다. 1969년 이후, 수 백 년 동안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렸던 1500 여 교

회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건축 양식 때문에 보존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예배당들은 팔렸거나 헐려지고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팔린 교회 건물들은 박물관, 암벽 등반 센터, 옷 가게, 음악실, 술 파는 가게, 나이트클럽, 문신 하는 곳이 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이슬람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이 되기도 하였다. 한 때 서구 기독교를 대표하던 영국이 그 기초를 잃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버려진 땅이 되었다. 지금은 신(神)을 말하면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인구의 2.5%만이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뿐이다. 불행하게도 이런 쇠퇴 현상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시 한 가운데 혹은 한적한 교외의 텅 빈 예배당들은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새 종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물들이 되었다. 시작할 때는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사상이 전혀 해로울 것 같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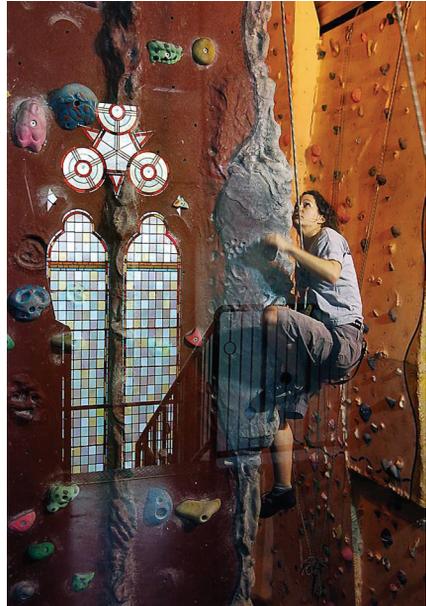
있는데 이것이 무서운 대 역병이 되어 단 두 세대 만에 교회를 텅 비게 하고 대신 교회 밖 큰 길은 텅 빈 영혼들로 가득 채워버렸다. 그런데 똑 같은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어느 대학 교수는 호주에서도 10-20년만 지나면 지금의 주요 교회들이 생존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대서양 건너 250 여 년 전에 “하나님 아래 한 국가”를 만들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씨앗들이 심겨진 미국에는 크리스천 선배들의 나라 영국이 영적 전염병으로 황폐되어버린 것을 눈치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영국은 지난 200년 동안 위대한 설교가들, 교사들, 전도자 등 위대한 영적 선배들을 배출한 나라다. 그러나 똑 같은 전염병이 미국 해변에 도착하여 제지할 수 없는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미국의 교회를 조사해 보았더니 여기도 이미 많은 교인들이 떠나가고(already gone) 없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도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도 미국 교회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미 바나 리서치(Barna research) 그룹의 보고서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는 3분의 2의 자녀들이 장차 교회를 떠날 것이라 우려는 많은 관심 있는 사역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 바나는 미국 20대의 과반수(61%)는 십대 시절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교회를 떠난 1000 명의 20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명성 있는 조사 기관(America's Research Group, ARG)에 의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된 자료에서 그 떠나간 20대들을 살펴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 아니 정 반대의 현상이 생겨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이 교회를 떠났는지를 살펴 보면, 주일예배와 주일학교에 다 참석하는 아이들(61%)이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아이들(39%)보다 훨씬 더 높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주일예배와 주일학교에 다 참석하던 아이들이(39%)이 주일예배만 참석하는 아이들(27%)보다 더 반 교회적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들의 삶의 형태를 보아도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이 낙태나 동성결혼 합법화를 더 지지하고 있으며, 혼전 성관계를 옹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현재 미국의 주일학교는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하고 있을까?



암벽등반 센터가 된 영국 교회의 예배당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기가 대학 시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지 11%만 대학 시절에 교회를 떠났고 나머지 거의 90%는 고등학생 때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다. 약 40%는 초등/중학교 때 교회를 떠난다. 이 조사를 담당했던 브릿 비이머(Britt Beemer)는 시장 및 소비행태의 첨단 연구분석가이자 ARG의 회장인데 그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에서 온다고 전제한다. 실제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의 성경에 대한 믿음의 변화를 보면 40%는 중학교 때 처음 성경을 의심 하였다고 말했다. 44%는 고등학교, 11%는 대학교 때 각각 처음으로 성경 기사와 이야기들을 의심하기 시작 했다고 말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수백만 가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믿음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그들의 믿음에 의심이 생긴 것일까? ARG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받은 교육 내용은 믿음을 저해할만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았다. 90% 이상은 교회에서 성경은 진리이고 정확하다고 가르쳤다고 대답 하였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은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교회를 떠난 각 개인에게 78 개의 질문을 하고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창조 기록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77%는 노아방주와 전 지구적인 홍수를 믿는다. 75%는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62%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 세에 낳았음을, 60%는 바벨탑 사건을 믿는다. 그러나 불과 20%만 지구가 1만 년 이내라고 믿는다. 이런 성경 기록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는 다음에 다루겠지만 창조과학자들이 늘 말 해 왔듯이 지구의 나이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성경을 불신하는 시작임을 잘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 주역들이 자녀들이 붓물 터지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다. 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그들의 교회 생활과는 엄청난 간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는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아이들은 믿음을 잃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멀어져만 가는가? 여기에는 분명 심각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이유를 알아 내어 고쳐야만 한다. 방법은 있다! 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다!

AFTER EDEN by Dan Lietha

다시 한 번 말 해 줄 수 있겠니?
생명체는 <수백만년> 전에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능력을
내가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말아야!





세인트 헬렌 산에서 흘러 나온 용암

암석의 나이 측정법 K-Ar

지난 호에서는 진화론자들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탄소14로 화석을 측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탄소14를 사용하면 오히려 죽은 지 수천 년의 나이를 보여준다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번 호에서는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대하여 다루어보려고 한다.

지질학자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으로 용암(땅 내부에 있을 때는 마그마라고 부른다)이 굳어서 된 화성암(igneous rocks)이다. 화성암을 측정하는 방법은 우라늄-납(U-Pb), 루비듐-스트론튬(Rb-Sr), 칼륨-아르곤(K-Ar)방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을 꼽으라면 칼륨-아르곤 방법이다. 칼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르곤으로 변하므로, 어떤 암석 속에 아르곤 양이 많으면 오래된 것이며 적으면 젊은 암석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이 칼륨-아르곤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용암은 매우 뜨겁기 때문에 용암이 굳기 전에 가스인 아르곤은 공기 중으로 모두 날라가 버린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가정 하에서는 현재 돌 속에서 남아있는 아르곤은 모두 칼륨이 붕괴되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방사성 동위원소 방법의 가장 골치거리인 아르곤의 처음 양을 “0”로 놓고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용암 속에 있던 아르곤이 굳기 전에 공기 중으로 모두 빠져나간다는 가정이 타당하냐 하는 것이다. 사실이 타당성 여부는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칼륨이 아르곤으로 변하는(붕괴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이다. 그 속도는 12억 5천 만년이 지나면 칼륨의 양의 반이 아르곤으로 변할 정도로 느리다. 즉 이 아주 느린 붕괴속도 때문에 기존의 용암에 이미 존재하는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아르곤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아주 오래 전에 분출했다고 측정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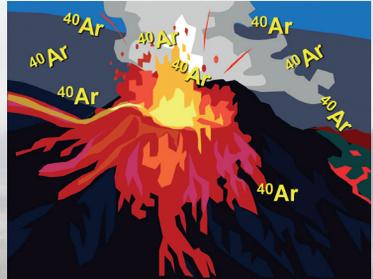
그렇다면 용암이 굳기 전에 아르곤이 모두 빠져나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실제로 이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실제 화산폭발 후 용암이 굳은 다음 그 속에 아르곤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그 용암 속에 아르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앞의 가정은 설득력이 있지만, 아르곤이 존재한다면 그 가정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최근 폭발하여 굳은 용암 속에 아르곤 가스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결코 없다. 그러므로 이를 12억 5천만년이라는 반감기를 통해 나이로 환산하면 수십만 년에서 수십억 년이라는 긴 나이로 계산되는 것이다. 지질학자들은 이 용암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아르곤을 ‘초과 아르곤(excess argon)’ 이라고 부른다.

이 초과 아르곤은 많은 지질학자들에게 칼륨-아르곤 방법의 문제점으로 여러 번 지적되었다.

“연대측정 광물에 대한 칼륨-아르곤 방법의 한계 중에 하나는 초과 아르곤인데, 이는 이 광물들이 비정상적으로 오래됐다고 결정되는 이유이다... 그러므로 (그 암석은) 비정상적으로 오랜 연대를 가져온다.”¹

“초과 아르곤은 연대측정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된 광물과 암석에서 관찰되었다.”²



아르곤 가스가 다 없어질 수 있을까?

격변의 예로서 여러 번 소개됐던 1980년 폭발한 세인트 헬렌 산의 용암을 6년 후에 측정했을 때 아르곤 가스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는 방사능 붕괴로는 50만-280만 년이 걸려야 누적될 수 있는 양이다. 즉 결코 화산재나 용암에서 아르곤 가스가 모두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³ 가장 활동적이라고 하는 뉴질랜드에서 나르호히(Ngauruhoe) 화산은 1949, 1954, 1975년에 각각 분출했는데 아르곤 가스 양으로 환산했을 때 27억 - 350만 년이었다.⁴

대표적인 일반 지질학 논문에서도 초과 아르곤 가스는 여러 번 발표되었으며, 어떤 경우 심지어는 그 광물의 화학조성상 칼륨을 갖고 있지 않은 데도 아르곤 가스가 발견된다!^{5,6} 이 아르곤 가스는 분명히 칼륨 붕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용암이 굳을 당시부터 그 안에 존재했던 것이다.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미리 짐작해왔던 진화론자들은 자신의 예상과 맞아 떨어진다든 이유 하나만으로 칼륨-아르곤 방사성 동위원소 법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그 편견 때문에 억지스러운 가정을 수용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1. Morozova, I. M., "Inheritance of radiogenic argon by newly formed minerals during glauconite hydrothermal transformations", *Geochemistry International* 35(8): 716-723, 1996.
2. Rublev, A. G., "The possibility of correcting for excess argon in phegites", *Chemical Geology* 121:327-343, 1985.
3. Snelling, A. A., *Geochemical Processes Radioisotopes and the Age of the Earth*,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pp. 123-304, 2000.
4. Vardiman, L., ed., *Radioisotope and the Age of the Earth*, Vol. 2, Master Books, Green Forest, Arkansas, p. 420, 2005.
5. Funkhouser, J.G., Barnes, I.L. and Naughton, J.J., "Problems in the Dating of Volcanic Rocks by the Potassium-Argon Method," *Bulletin of Volcanology*, 29: pp.709-717. A.W, 1966.
6. Laughlin, A. W. "Excess Radiogenic Argon in Pegmatite Mineral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74: pp.6684-6690, 1969.

ACT News

모집 탐사여행

지난 7월 2-4일과 16-18일 두 차례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모집하여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 부전교회, 창대교회, 충현선교교회, 오렌지 카운티 약사회에서 단체로, 그리고 그밖에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탐사여행이 주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한 교회만으로 구성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한 해에 몇 차례 모집하여 탐사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전도의 도구로 교회와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것을 간증했습니다. 내년에 모집하여 떠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빙하시대 탐사여행의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인랜드 순복음교회

지난 7월13-15일 인랜드 순복음교회(담임목사 고헤렌)가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인랜드 순복음교회는 매년 1월 첫 주마다 창조과학 세미나를 가져왔었습니다. 탐사여행 동안 그 동안 세미나를 통해 이차원적으로 느끼던 것을 삼차원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기회였음을 간증하였습니다.

Come Mission 선교학교

Come Mission(대표 이재환)과의 탐사여행이 지난 7월 23-25일 있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은 7월 한 달간 진행된 Summer Mission School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가자와 강사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창조과학이 신앙의 기초를 갖추고 복음전파의 귀한 도구임을 공감하였습니다. 특별히 탐사여행 원년인 2000년에 참석하셨던 채태현 채수잔나 선교사 내외분과 신윤근 교수(상지대 환경공학과) 내외분께서 9년 만에 참석하셨습니다.



최근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이란 광고를 보고 혼동되어 문의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금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ACT) 고유의 “창조과학 탐사여행” 과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산호세 은누리교회 Youth - 세도나에서(위)
 복음장로교회 샌디에고 창조박물관 관람(가운데)
 Come Mission 선교학교 탐사여행(아래)





그랜드캐년에서 2세 탐사여행을 인도하고 있는 김선욱 박사

김영련)이 영어권만으로는 처음으로 탐사여행을 가졌습니다. 김선욱 박사가 인도하였습니다. 탐사여행에 참석했던 2세 학생들이 주입식으로만 받던 진화론에서 벗어나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의 시작으로 각 교회에서 탐사여행을 도구로 2세들에게 사실인 성경에 믿음의 기초를 두는 기회로 사용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의 감동을 간증 코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다. 지난 9년 동안 탐사여행의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과 업그레이드 된 내용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2세 탐사여행, 산호세 온누리교회 Youth 창조과학선교회가 가장 기도했던 탐사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바로 영어권 탐사여행입니다. 지난 7월 27-29일 산호세 온누리교회 Youth Group(담임목사

일본인 빙하시대 탐사여행

오는 9월 28-30일 일본인들을 위한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요세미티를 중심으로 빙하시대 탐사여행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이 4년째로서 창조과학이 일본선교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는 8월 20일과 11월 말에는 이재만 부회장이 동경에서 열리는 일본인 CEO와 한일 대학생 수련회 강사로 초청되어 강연이 있습니다.

샌디에고 1일 탐사여행

복음장로교회(담임목사 김상덕)와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는 각각 6월 13일과 7월 11일 샌디에고의 창조과학박물관을 방문 하였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박물관 관람 후 샌디에고와 태평양이 한 눈에 내려 보이는 슬레다드 산에 올라 지형 형성을 듣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습니다. 토리파인 해안을 답사한 ANC 온누리교회는 지난 6월 첫 주부터 창조과학학교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실내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창조와 노아홍수의 증거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제 1차 풀러 신학생 탐사여행

제 1차 풀러 신학생 탐사여행은 9월 21-23일 출발합니다.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지원으로 1인당 참가비는 \$70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참가 자격은 창조과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생 탐사여행은 앞으로 매년 한번씩 출발할 예정입니다.

창조과학학교 소식

시카고 지역의 제 9기 창조과학 학교는 9월 14일 부터 10 주간 삼버그침례교회(담임목사 김광섭)에서 열리게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

랍니다. 847-845-5368이나 630-400-6114 혹은 tyi@sbcglobal.net으로 연락 바랍니다.

9 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흥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창조과학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회(310-719-2244)나 저희 사무실로 미리 연락 바랍니다.

창조과학 세미나

사랑의 빛 선교교회(담임목사 김재운)와 한샘물교회(담임목사 장요한)는 6월과 7월에 걸쳐 각각 3 번의 세미나를 수요일 마다 가졌습니다. 인류의 기원, 노아홍수, 노아홍수와 홍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세미나를 통하여 성경에 대한 의구심을 떨어버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사랑의 빛 선교교회는 8월 13-15일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차 유학생 탐사여행

내년 1월 4-6일 7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출발합니다.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담임목사 강일진)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70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창조과학 선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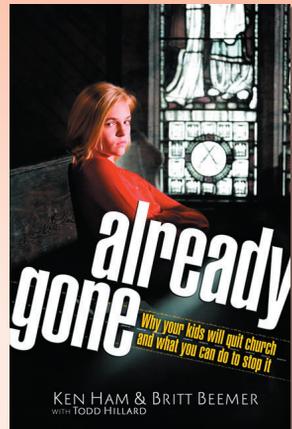
책 소개

already gone

커버 스토리에서 다른 차세대 교회에 대한 글과 연관이 있는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활발한 창조과학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Answers in Genesis (AiG)의 사장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창조과학 강사 켄 햄(Ken Ham)과, 시장 및 소비행태의 첨단 연구분석가인 America's Research Group의 회장 브리트 비이머(Britt Beemer)입니다. 비이머는 AiG가 2007년 5월 개관한 창조박물관에 4000,000 명이 방문하게 될 기간을 365일로 정확히 예측하기도(실제는 363 일만에 달성)한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는 또 다른 한 세대를 잃기 전에,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가슴 아픈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손 쓰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다음 세대에는 사라지고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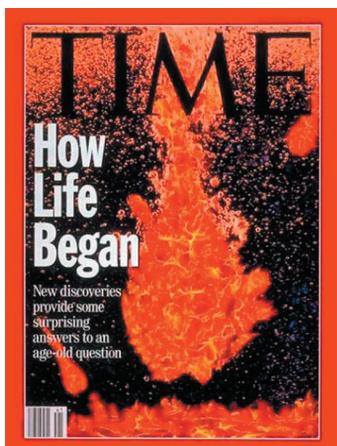
저자 중 한 명인 켄 햄은 그것은 신앙의 기초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책 《Already Gone》은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를, 우리 세상을 다시 찾아 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시는 부모, 목회자, 교회의 리더와 교사들은 꼭 이 책을 읽어 보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보았던 청소년들의 3분의 2는 몇 년 후에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www.answersingenesis.org나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떠나는지, 왜 떠나는지,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현상으로 생명의 기원을 설명 할 수 있을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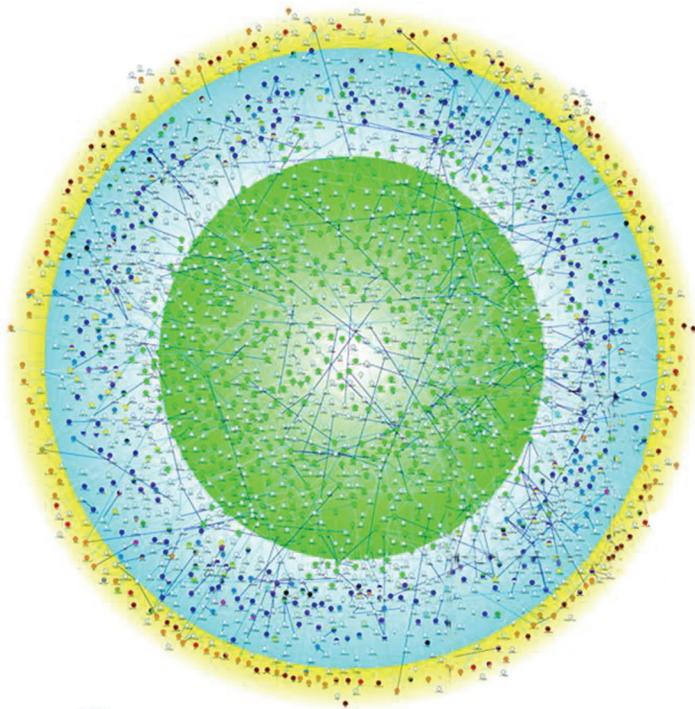
어떻게 생명체가 생겨 날 수 있는지 시간이 대답해 줄 수 없다.

는 수천 개의 유전인자는 어느 특정한 기능을 위한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지 시 방침이 기록 되어 있다.

생명이 생명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엄청난 양의 정보를 포함한 복잡한 세포로 진화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가설이나 모델은 정보의 출처와 세포내의 계층에 이 정보가 어떻게 새겨 질 수가 있는지를 동시에 설명해야 한다. 모든 진화론적인 설명은 이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물리학 교수였고 독일의 브라운슈바이그(Braunschweig) 물리공학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워너 깃트(Werner Gitt) 박사와 리 스펡트너(Lee Spetner) 박사는 정보는 자연현상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데 동의 한다:

물질에서 저절로 정보가 생겨나는 어떠한 자연법칙도 과정보도 현상도 아직까 지 알려 진 것이 없다.¹

생명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정보다.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점은 세포 내에 정보가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런 암호화된 정보가 왔을까? 단백질은 너무나 다양하고 수 많은 생물학적인 기능을 감당하지만 DNA도움 없이 자기 혼자는 만들어 질 수 없다. DNA의 기능은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정보를 RNA로 전사 해주는 일이고, RNA의 기능은 DNA로부터 온 정보를 읽고 해독하여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일이다. DNA분자에 포함되어 있



세포 속의 초정밀 신호체계

세포의 계층에 적은 정보를 첨가 시키는 단 하나의 돌연변이도 관찰 된 적이 없다. 이것은 분명히 진화론이 옳기 위해서 필요한 수 백만의 가상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²

모든 동식물의 DNA코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어느 컴퓨터 칩 보다 더 조밀하다. DNA는 아주 조밀하여 일 입방인치의 DNA는 70억 권 이상의 성경 정보를 집어 넣을 수 있다. 유전자 코드의 조밀도나 복잡성이 사람이 만든 것 보다 수 백만 배 이상 되니 정보를 준 이는 대단히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생물학자가 언급하기를, DNA는 정보 암호다.... 정보는 기계적인 과정을 통해 저절로 생기지 않고 또 생길 수도 없다. 유전자 코드를 포함한 어떠한 정보 암호도 아무리 긴 시간이 주어 진다 하더라도 지성이 있어야 생긴다.³

하나님은 말씀에, 피조물은 하나님을 증거하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없다고 하신다(로마서 1:19-20). DNA에 새겨진 정보코드는 무한한 정보의 출처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창조자를 증거한다.

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왼손형 아미노산만 연결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설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첫 세포를 만들 때 사람은 없었으므로 이 것은 더욱 무한히 현명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조지 왈드박사는 다음과 같이 쓴 적이 있다,

진화나 그 과정의 어느 단계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 같아도 충분한 시간만 준다면 적어도 한번은 일어난다.... 시간은 이 사건의 영웅이다.... 충분한 시간만 준다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고 가능은 확실한 것으로 바뀌고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된다. 사람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이 기적을 이루기 때문이다.⁴

단백질 합성의 경우에, “충분한 시간만 준다면” 하는 말은 의미가 없다. 심지어 작은 단백질(100개의 아미노산)이 우연히 만들어 질 수학적 확률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100개의 왼손형 아미노산으로 된 작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무엇일까? (대개의 단백질은 최소 300개의 왼손형 아미노산으로만 되어 있다.) 대개의 단백질 보다 훨씬 짧은 100개의 왼손형 아미노산으로만 나열 한다는 것은 동전을 던져서 한 쪽만 100번 계속 나오는 확률이다. 동전의 같은 쪽만 계속해서 100번을 나오게 하자면 동전을 10의 30승 번을 던져야 한다(10에 10을 30번 곱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시간 기준에 의해도) 우주의 전 역사를 통해서도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

진화 모델이 맞기 위해서는 복잡한 구조가 자연현상에 의해 저절로 만들어 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의 복잡성은 이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확률에 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0의 50승 분의 1이하면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간주한다(이것은 1을 10의 50승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서 아주 작은 수가 된다).⁵

10의 50승 분의 1(10^{-50}) 이하의 확률이면 절대 불가능하다.

한계 확률

1

1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0,
000,000,000

과학자들이 보통 크기의 단백질이 자연히 만들어 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 값은 무엇일까? 재료공학박사 월터 브래드리와 화학박사 찰스 텍스틴⁶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부터 우연히 만들어 질 수 있는 확률은

$$4.9 \times 10^{-191}$$

이것은 가능성의 범주를 벗어난다(1×10^{-50}), 그리고 하나의 단백질이 완전한 살아 있는 세포가 되기에는 아직도 길이 멀다. 천문학박사인 프레드 호일경과 응용수학 및 천문학 교수인 위크라마싱은 자연현상으로 세포가 생길 확률을 계산 했는데 그 수는

$$1 \times 10^{-40,000}$$

주위 환경을 아무리 넓게 잡아도 생명은 우연히 생겼을 수가 없었다.... 2000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무작위적인 조작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확률은 $(10^{20})^{2,000} = 10^{40,000}$, 이것은 전 우주가 유기물질로 되어 있는 스프일지라도 불가능한 기막히게도 작은 확률이다.⁷

결론

지금까지 보아 온 것처럼 과학적인 증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확증한다. 생명은 생명이 아닌 것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 하실 수 있다. 진정한 과학과 성경은 언제나 항상 부합된다. 생물학이나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혹은 다른 어느 분야의 학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일어나 창세기의 진리를 세우고 우리의 문화를 회복하자.

1. Gitt, W., In the Beginning Was Information, p. 107, 1997.
2. Spetner, L., Not by Chance, p. 160, 1997.
3. Lester, L., and Bohlin, R., The Natural Limits to Biological Change, p. 157, 1989.
4. Wald, G., The origin of life, Scientific American 191:45, August 1954.
5. 확률 전문가 에밀 보렐은, “확률이 극히 낮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주적인 규모에서 50승 분의 1이 바로 그 수치가 될 것이다.” (Borel, E., Probabilities and Life, p. 28, 1962).
6. Thaxton, C., Bradley, W., and Olsen, R., The Mystery of Life's Origin, p. 80, 1992.
7. Hoyle, F., and Wickramasinghe, C., Evolution from Space, p. 176, 1984.

산호세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탐사여행 (7/27 - 7/29, 2009)

3일 동안의 창조과학 캠프 정말 즐거웠어요. 여기 온 건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 홍민수, 7학년

늘 지난 과거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어떻게 화석이 만들어졌는지, 20억 년 동안 어떻게 지구가 살아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과학과 성경이 연결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실을 배우고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중훈, 12학년

이번 여행을 통해 과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7학년 과학을 배우면서 진화와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틀린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확실히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고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인도해주신 John Kim 박사님, 저희들을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저희가 정답을 맞추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 이정은, 7학년

성경 역사와 진화역사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전 성경을 믿지만 공통 같은 것들은 혼동되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의문들에 답을 주셔서 감사해요. 내 뜻 다해 성경을 따르도록 노력할거예요. 고맙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로 돌아가는 동안 내내 노래했던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Thank you! May God bless you! - 최미란, 7학년

와! 이진 별 ★★★★★다섯 개예요! 정말 놀라운 여행이었어요! 자연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그 실체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멋진 일을 하신 박사님께 복주시기를! - 신찬식, 8학년

이번 탐사여행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이나 여러 환경이 종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신기하면서도 흥미가 있었습니다. - 윤재곤

이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흥분되고 유익했습니다. 창조와 진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알렉스 임, 9학년

이 여행은 아주 교육적이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은 정말 멋지고 흥분되는 곳이었습니
다. 그 동안 알지 못한 많은 진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황준우, 9학년

처음에 창조론에 관한 강의를 들었을 때는 조금은 무거운 제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그런데 조금씩 견뎌내며 강의를 듣는 나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니 얼마나 보고 싶었던 모습이 아니었는지 모른다. 어린 줄만 알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다. 그리

고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다른 사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아직 궁금한 것이 너무 많지만 앞으로 이런 탐사여행을 통해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재, 12학년

창조과학 캠프 동안 아주 재미 있었어요. 자연과 사람의 창조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 송희은, 6학년

창조과학 캠프는 아주 흥분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여기 정말 잘 왔어요. - 세라 리, 7학년

창조과학 캠프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웅장한 자연에 대한 많은 것들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재미있고 교육적이었습니다. - 브라이언 신, 8학년

창조과학 캠프는 여름 캠프 같은 것이었죠. 방주에는 공룡들과 다른 많은 것들이 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Nicholas Park, 7학년

이 창조과학 캠프는 내가 갔던 캠프들 중에 최고였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아름다운 곳들도 보고, 재미 있는 일도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과도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내년에 또 와서 주님의 창조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 - 박서영, 6학년

창조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여행을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지구에 생명체가 생긴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배웠거든요. 처음에 창조 이론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진화론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배우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방주가 좋았어요. 전 여태까지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만들어진 이야기 같은 것인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역을 하시는 박사님께 감사 드려요. 공룡들이 아주 최근까지 존재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박사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일입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셔서 감사해요. - Jenny Lee, 10학년

이 여행은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많이 배웠습니다. 이 여행을 하기 전에는 가끔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지 의심을 했는데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재미있고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 정선우, 8학년

이 여행은 아주 재미있고 교육적이었습니다. 여러가지 지층들을 통해 진화가 여러 면에서 어떻게 그릇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 James Park, 8학년

진화가 혼동되었지만 더 믿겨졌는데 그 이유는 교회에서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창조과학 캠프는 창조에 대한 저의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정혜술, 9학년

● 번역되지 않은 간증문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9년 ACT Schedule

- 9/5-7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13-382-5658) CA
- 9/9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9/11-13 시라큐스 기쁨의 강 교회(세미나, 이재만, 315-727-8111), NY
- 9/14-11/16 중부 창조과학학교 (삼버그침례교회, 매월요일 8-10pm, 847-845-5368), IL
- 9/13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9/14-16 빙하시대 탐사여행 (CRC 목회자, 562-882-9191)
- 9/16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9/18-20 유타 교회 협의회 (이재만) Salt Lake City, UT
- 9/21-23 창조과학 탐사여행 (Fuller 신학생, 213-381-1390)
- 9/23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9/25-27 본한인교회 (세미나, 이재만, 905-881-2999), Canada
- 9/28-30 빙하시대 탐사여행 (일본인 교회, 213-381-1390)
- 9/30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9/28 주님의영광교회 새가족(최우성), LA, CA
- 10/2-4 뉴욕 맨하탄 선교교회 (세미나, 이재만, 718-321-7800), NY
- 10/7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0/9-11 맥알렌 한인교회 (세미나, 이재만, 956-342-2808), TX
- 10/14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10/17 샌디에고 창조과학박물관 (최우성, 창조과학학교 310-719-2244) Gardena, CA
- 10/18 주님의 영광교회 새가족(이재만), LA, CA
- 10/21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이재만, 310-719-2244) Gardena, CA
- 10/23-25 토론토 성산교회 (세미나, 이재만, 416-785-4620), Canada
- 10/26-27 미주 두란노 (세미나, 이재만, 213-381-1390), L.A, CA
- 10/28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10/31 인랜드 순복음교회 (새생명 축제, 이재만, 213-381-1390), Inland, CA
- 11/1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새신자반 (이재만, 562-653-0168), Cerritos, CA
- 11/4 창조과학학교 대흥장로교회 (최우성, 310-719-2244) Gardena, CA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